




가까이 다가온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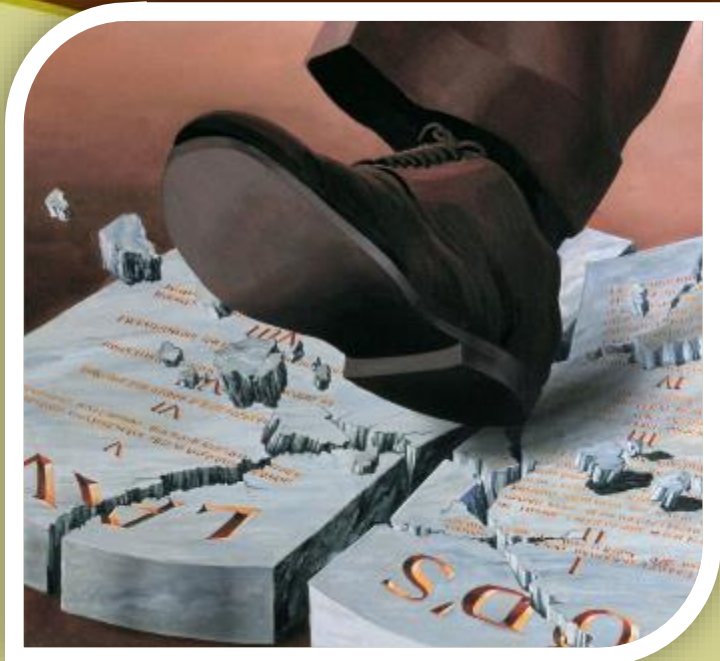









**“그들을 진리로 기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수백년 동안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다른 것들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삐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퍼뜨리고 사람들, 교회,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모든 사람을 핍박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기본 진리는 억지로(잘못되게) 고쳐졌고 심지어 안식일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핵심은 진짜 안식일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투를 위해 사탄이 사용할 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쟁(싸움):
-  예배.
-  배척당함.
-  적(원수):
-  용의 보좌.
-  회복된 상처.
-  어린 양과 용.

전쟁 (싸움)

예배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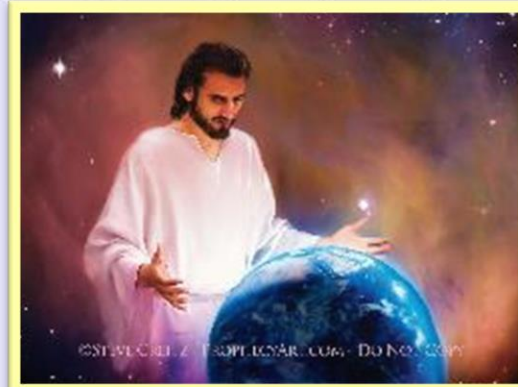


하늘의 시민들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계 4:11; 욥 38:6-7).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 45:6-7, 18-20; 65:18).

세상의 마지막 세대를 위한 기별은 세상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계 14:7).

사탄은 “짐승들”에게 전 세계가 예배할 형상을 “만들” 능력을 주고서 그것들을 이용해 자신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계 13:2, 4, 14-15).

이런 때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계 14:12)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에 그분께 예배 드립니다.



배척당함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요 16:2).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엡 6:12). 우리는 만질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적 무기를 사용합니다(고후 10:3-5). 그러나 적은 물리적인 무기들을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사탄이 퍼붓는 엄청난 공격으로 “화 (어려움)”를 당하는 믿는 사람들의 희생은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 12:12). 사탄의 무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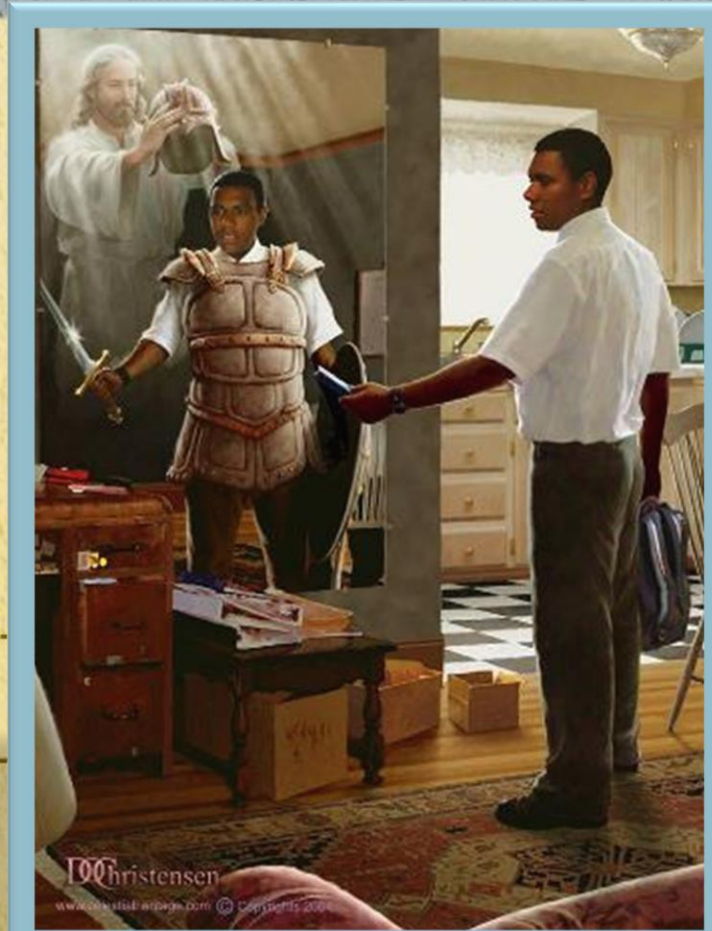
사탄은 우리의 성향을 이용해서 시험에 빠뜨립니다 (약 1:14).

그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고후 4:3-4).

우리와 친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마 10:34-36)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행 5:40)

사탄은 끔찍한 폭력을 사용합니다 (요 16:2).



사탄은 이런 방법들을 역사속에 사용했으며,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이다: 속임수와 교활함(계 13:13-14); 경제적 제재 (계 13:16-17);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사형하라는 명령을 내림 (계 13:15).

적(원수)

용의 보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계 13:2)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계 12:9),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을 말합니다 (사자, 곰, 표범 그 다음 짐승- 계 12:1, 13:2).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일어납니다 (계 12:3-5). 첫 번째 구절은 1,260년 동안 더욱 거세진 교회를 향한 핍박을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계 12:17)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바리안 부족이 로마를 침범한 후로 로마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서서히 로마 교회가 제국의 실권을 잡았고, 로마 교회는 참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계 13:4-8).



회복된 상처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 13:10)

수 백년에 걸쳐 “포로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계 13:10) 권세를 남용하던 로마 교회는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피우스 6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계 13:3).

로마 교황들은 1870년까지 세력을 유지했으나 이탈리아 왕국이 건국되면서 마침내 자신들의 영토를 모두 잃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1929년에 바티칸 시국은 독립 국가로 인정받았다. 바로 그 상처가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지구에 닥친 위기들을 해결해 나갈 지도자를 뽑게 될 것입니다. 교황청이 제시하는 해결책 중에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 민족,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장치인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선포하는 법이 포함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용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 13:11)



첫 번째 짐승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부패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첫째 짐승이 상처를 입었을 때, 사탄은 그 짐승을 치료하고 그것을 대신할 “거짓 선지자”를 구했습니다(계 13:11; 16:13). 그리고 다시 한번 사탄은 기독교의 순수한 원칙에서 시작된 나라, 북미(미국)에서 그가 이용할 세력을 찾았습니다.

사탄은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흉내 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왕도 없고 왕관도 없는 이 나라는 공화주의 국가였으며, 시민(국가)과 종교(교회)의 두 권력(뿔)의 분리를 그 원칙으로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초 강국이 된 이 나라는 이미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이 나라는 교황권을 지지하면서 “짐승의 형상”(계 13:12-14)을 만들 종교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모양은 그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종교 조직을 상징합니다. 바로 양같이 생긴 짐승의 모습입니다. 양 같은 이 짐승은 평화롭고 온순해 보이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아래 서로 뭉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한 교회들은 국가 정부에 그 영향력을 써서 새로운 종교법을 시행하고 교회 조직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미국 개신교는 교황권의 형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교회도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